



다조아 TV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다조아뉴스

다조아뉴스는 부천시협동조합협의회에서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개설한 다조아TV 홍보채널의 소식지입니다.



이음플러스뉴스



이음+ NEWS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발행 이음플러스뉴스·다조아TV | 편집인 오 산 | 발행일 2020년 12월 4일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361, 3층 (춘의동) | 연락처 032-673-0579 | 홈페이지 www.eumplus.net

- | | | | |
|--|--|--|--|
| <p>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조아 네트워크 파티 업무협약 · 경기 서부권역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 <p>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한농부 · 새로운 인연 · 이음플러스 디지털교육 · 코로나시대 e-Commers 시장 전망 | <p>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동네를 잇다, 아담법석 네트워크 파티 · 다조아TV, 다조아장터 프로젝트를 마치며 · 부천시여성회관 '일품터' 공간조성 | <p>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앗커피 · 어게인-겨울, 떠돌이 · 협동조합의 이해 교육안내 |
|--|--|--|--|

2020년 경기도 공유·협업모델 다조아 네트워크 파티

‘다조아장터’ 웹스토어 구축, 부천시 협동조합협의회 회원사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11월 7일, 부천시 협동조합협의회(회장 최승주)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스마일어게인, 사랑이야기가 공동으로 주관한 ‘다조아 네트워크 파티’를 시루작은도서관(부천시 길주로 361)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탈북예술가로 구성된 우리하나예술협동조합(이사장 김송연)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다.

탈북민으로 이루어진 ‘우리하나예술단’은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활동한다. 또한, 탈북예술인

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정착할 수 있도록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손풍금(아코디언) 연주와 가요 메들리로 네트워크 파티의 분위기를 한껏 올렸다.

이음플러스(사협)와 부천시 협동조합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으로 ‘다조아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은 다조아 팀빌딩을 위한 워크숍과 미디어교육에 이어 유튜브 홍보영상 촬영까지 코로나19 상황 속에

서도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다만,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하려던 ‘다조아장터’는 그 일정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은 온라인 장터로 사업을 변경해야 했다. ‘다조아 네트워크 파티’는 그간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다조아장터’ 사업을 주관하는 ‘이음플러스’는 네이버와 쿠팡에 입점하여 운영하게 된 웹스토어(dajoa-market)에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하게 될 기업들과 공동 마케팅과 판매 업무 협약서를 체결

했다. 부천시 협동조합협의회와 이음플러스가 운영하는 웹스토어 입점 업체는 다음과 같다.

▲스마일어게인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최승주) ▲에코수협협동조합(이사장 박필수) ▲강사협동조합 세움(이사장 김일숙) ▲착한농부협동조합(이사장 한효석) ▲북사골공예협동조합(이사장 이인순) ▲에플하우스(대표 김경숙) ▲텐탈코리아(대표 김용대) ▲이디놀이심리연구소(대표 이유민)

글 | 오 산(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경기 서부권역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개최

부천시 협동조합협의회(회장 최승주)는 지난 11월 6일 시루작은도서관에서 경기 서부권역 협동조합들 간 연대·협력의 장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상호거래와 공동사업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오전에는 심리전문가와 함께 내 안의 감정 상태를 진단하고, 강점과 약점을 찾아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는 ‘협동의 심리학’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지혜를 더하는 이음플러스 심리상담센터 최지혜 소장이 담당했다.

오후에는 2020년 부천시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추진한 ‘다조아사업’에 대한 평가와 ‘비대면시대 협동조합이 갈 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2021년 조합의 비전을 캘리로 써보는 체험을 하는 등 워크숍은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점심 식사는 스마일어게인(사협)에서 운영하는 케이터링 전문매장 ‘스위트그린’에서 준비했다.

글·사진 | 오 산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디자인에 감동을 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해냄기획사회적협동조합

032.719.4981

농사는 협업해야 지속가능해요

착한 먹거리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착한농부들



이번에 협동조합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우리 버섯협동조합 이사장이 농장에서 일하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그 빈 자리를 조합원이 조금씩 나눴습니다. 원래 우리 착한농부협동조합은 조합원이 6명이었고, 이사장이 목이버섯 농사를 주로 전담하였습니다. 농장을 관리하고, 버섯 생육을 살피고, 세척하고 출하하는 일을 맡았구요. 다른 조합원들이 버섯 주문을 받고 회계를 맡아 택배 발송을 의뢰하고 있었어요. 이사장을 빼고 조합원들이 생업이 따로 있어서 틈나는 대로 이사장이 맡은 일을 평소와 조금씩 나눠 하고 있지요.

귀농, 귀촌에서 협업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농사는 허드렛 일에서 전문적인 일까지 아주 다양한 일에, 엄청난 노동력이 투입됩니다. 어린아이 손조차 아쉬운 때가 많아요. 더구나 그 노동이 회사



또는 제조업처럼 일정한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는 것처럼 몇 일 몇 날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평평 노는 날도 있어요. 옛날에 두레라는 것이 있어서, 평소 공동으로 협업하여 노동력을 서로 쉼 주고 나중에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지 않고, 자기 노동력만으로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귀농, 귀촌을 하게되면 포클레인이 있는 이웃, 트랙터가 있는 이웃이 반가울 수밖에 없죠. 물론 공짜가 아니지만, 가까이 있으니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나도 수지침을 놓거나, 보일러를 고치는 재주가 있어야 이웃을 도와주거나,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귀농, 귀촌은 나 혼자 하는게 아니라서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도 귀농 귀촌을 해야 한다면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주변에서 협동조합 정신(두레)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크고작은 일을 모두 돈을 쥐가며 할 수가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 일반 농사꾼이었다면 밭에 남은 농작물을 포기해야 했고, 이미 수확한 농작물도 어찌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을 사서 대신 시켜도 일이 서투르고, 하루종일 할 일도 아닌데 어쩔수 없어서 고용한 것이라서 인건비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이라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장점을 잘 발휘했습니다.

글·사진 | 한효석(착한농부협동조합 이사장)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진

‘이음플러스’에서 교육자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 마을과 세계를 잇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나와 당신을, 당신과 우리를, 우리와 세상을 잇는 [이음플러스뉴스]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지혜' 더하기 [이음플러스 심리상담센터]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시루작은 도서관]을 찾았다.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무원연금공단 상록봉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부천에선 30년을 살았다.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을 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온터라 퇴직 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궁금하고 반갑고 그 만남이 소중했다.

“Who am I?” 60평생 살아오면서 언제나 자신에게 묻곤 했던 문장이

다. 서울, 부천, 인천, 시흥, 다시 부천에서 남부천우체국장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마지막 날까지도 근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무던히도 노력했다.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환경분석, 시장조사를 통해 물류사업과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뛰어다녔던 사람이구나! 이제야 대답해 본다.

부천상록자원봉사센터장, 경기디지털강사, 글로벌물류SCM컨설턴트 등 많은 직함이 나를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었다. 이음플러스 오산 이사장님을 만나고 오래지 않아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려 하니 쑥스럽지만 이음플러스의 훌륭한 비전은 나를 설레게 했다.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지혜'를 더하는 이음플러스 심리상담센터에서 5일간 중·고생들을 만나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영상편집 교육,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취업과 진로 등 강의를 하고 학생들 개개인 상담을 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우리 친구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지 못한 것 같아 기

성세대로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 5일간 잠을 설치며 강의 준비를 했고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청소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어린 친구들을 기다렸다.

4차 산업시대 디지털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전 국민 디지털 역량교육 동참해야겠다고 마음 먹은지 2달이 지났다. 이음플러스에서 오산 이사장님의 따뜻한 눈빛과 열정, 사랑, 사람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보고 여기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보자고 다짐했다.

그동안 같고 닮은 역량을 이음플러스를 찾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벌써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1년은 우리 이음플러스의 비전과 같이 더 발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지만 힘을 보태고 싶다.

글 | 김남심(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이사)

이음플러스(사협)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디지털강좌 개설



지난 8월 정부는 2022년까지 13조원을 전국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역량교육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디지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취업 연계 교육까지 집 근처에 있는 디지털 배움터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스마트폰 활용법 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 비대면 화상 솔루션, SNS 등의 기본 활용법부터 교육, 금융, 전자정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편의 서비스까지 생활 속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제

공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이사장 오산)에서는 4차 산업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2021년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ITQ 자격증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A, B, C) ▲스마트폰활용 지도사 자격증 : 1급, 2급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자격증 : 1급, 2급 등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자격증반 강좌를 통해 강사를 양성하여 디지털 시대 양질의 미래 일자리를 제 공할 예정이다.

글 |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코로나 19로 인한 e-Commers 시장 점차 확대 전망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스마트폰 보급 확산,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시스템 발달 등이 전자상거래 성장을 앞당기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e-Commers는 핵심적인 쇼핑 수단이 되고 있다. 외출이 제한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눈을 돌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전자상거래 주문량이 급증하고 각 나라의 경기침체가 점차 증가되는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는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은 더한층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생활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도 고속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2024년 소매유통시장의 19.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점유율이 더 가파르게 확대될 것이 유력하다.

전자상거래 시장확대의 새로운 트렌드는 품목의 다양화와 고령층 쇼핑 증가, 온·오프라인 융합을 보이고 혁신 정보기술(IT)도입은 e-Commers 시장을 더 끌어당기고 있다. 쇼핑방식에서 오프라인 직접 구매방식이 사라지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 도입 등을 활용하여 챗봇이나 스마트폰 음성 주문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물류전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자동 부문 서비스가 구현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방역용품, 생필품, 홈코노미 관련 상품 등은 인기 품목으로 급부상하여 외출이 어려운 고령 소비자

들의 소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온라인 전환은 필수로 온·온라인 채널 융합을 서둘러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다.비대면 배송을 확대하고 증강현실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신선식품 증가에 대비한 골드체인 기술개발인 오픈채널을 구축 등의 전자상거래 트렌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그 추세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전자상거래(e-Commers) 트렌드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신규 고객과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로열티 프로그램, 고객별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유료 회원제나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반복적인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객 기반 구축 가능해야 한다. 외식업계, 부

동산업계 등 과거 대면 서비스 중심이었던 산업들도 가정으로 배송할 수 있는 즉석식품을 개발하거나 VR 투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전환을 통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고객층을 확대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고객이 어떤 채널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하나의 매장을 이용하는 듯한 매끄러운 소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재고관리, 마케팅, 사후서비스 등 판매 전 과정에 걸쳐 채널 간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고객에게 일원화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한 소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첨단 기술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발 빠르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야한다. 알리바바,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업체는 글로벌 소매유통시

장을 선점하기 위한 유통기업들의 경쟁없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기감도 고조되어 라자다와 플립카트를 인수하며 신평방 시장에 진출했으며, 아마존은 미국 식품유통기업 홀푸드를 인수하는 등 권역과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는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진행 중 또한 유통 공동체는 물류 자동화, 인공지능 기반 수요예측, AR·라이브스트리밍 등 디지털 기술을 선제 도입함으로써 소매유통업계의 가치사슬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80.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화물의 94% 이상이 항공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대기업이나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본다.

글 | 김남심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이사)

부천, 동네를 잇다 네트워크 파티 “야단법석” 성공리에 마무리

2020년 부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마을공간 활성화 모임 “숨은 그님 찾아 동네 한바퀴”



지난 9월 20일(일)부터 ‘마을공간 활성화 모임’은 여월2단지 커뮤니티 봉사단(대표 최은경)을 시작으로 부천에 마을공동체 공간, 일곱 곳을 찾아 소개하는 “부천, 동네를 잇다 숨은 그님 찾기”를 진행했다.

‘마을공간 활성화 모임’은 2018, 19년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과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공간에 대한 알려진 정보가 부족하고,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마을 공간으로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또한, 동네에는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활동가들이 많은데 이들이 마을에 공유자산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

들과 마을공동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활동 거리가 필요했다.

일곱 공동체의 대표들은 지난 8월, 준비모임 “동네를 잇다”를 통해 ‘마을공간 활성화 모임’을 구성하고 공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협의했다. 마을 공간 탐방 “동네 한바퀴”를 통해 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공간을 방문해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들을 만나고, 이색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강화되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정과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했다. 사업목적은 충실히 지키면서 방역방침에도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왔다. 우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네 한바퀴” 오프라인 모임은 10인 이내로 대표들만 참석하기로 하고, 페이스 북과 밴드를 통해 라이브 중계했다.

그 첫 일정으로 9월 20일 일요일에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공동체’ 여월2단지 커뮤니티 봉사단(대표 최은경)을 찾아 “여월이 키운 아이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대표 특강과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체험을 했다. 5일 금요일에는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시무작은도서관(대표 오산)을 찾

아 “마을에서 지혜 더하고, 지혜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미술공예와 마크라메 체험을 했다.

26일 토요일은 원예연구치료연구회에서 운영하는 공간, 흙이랑꽃이랑(대표 정희진)을 탐방했다. ‘지금 이대로 좋다’ 힐링 원예 체험과 “편견 안에 장애”라는 주제로 정희진 대표의 특강이 있었다.

27일 일요일에는 ‘행복 한 뼘, 사랑 한 코’ 바늘이 천을 꼭 짜를 때(대표 김선희)를 방문해 원미마을의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늘꼭’에 대해 김선희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오가닉 마스크 만들기 체험을 했다.

동네 한바퀴, 마을공간 탐방은 10월로 이어져 9일 금요일에는 ‘사람을 품는 마을플랫폼’ 마을공림의 가족공간네트워크(대표 신상현)를 방문했다. 신상현 대표는 “마을공간과 마을자치”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천연루테인 메리골드 꽃차 만들기 체험을 했다. 17일 토요일은 ‘너와 내가 함께 꿈꾸는 공간’ 꿈터(대표 김수아)를 방문했다. 마음이 통하는 책놀이와 “너와 나의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20일 화요일은 소사본동 마을만들기 기획단, 소마단(대표 신승직)을 방문했다. 소마단은 ‘함께하는 소사마을, 주민이 만들어 갑니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활동해온 마을자치단체다. 신승직

대표의 “소사마을 역사와 주민활동”에 대한 특강과 마을해설 체험으로 ‘정지용 향수길’을 걸었다.

각기 다양한 무지개 빛, 일곱 공간의 마을 탐방 이야기는 페이스 북과 밴드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브이로그(영상일기)로 제작되었다. 지난 11월 8일(일), 마을공간 활성화 모임은 시무작은도서관(부천시 길주로 361)에서 네트워크 파티 “야단법석”을 열었다. 마을 공간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활동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회였다. 일곱 공간을 방문하고,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영상과 사진 자료 등으로 정리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정동, 원종동 주민들로 구성된 ‘오원노래단’이 축하 공연을 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한 활동가들은 부천의 요소요소에서 마을공간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 평소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다.

‘마을공간 활성화 모임’은 2020년 부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무작은도서관이 주관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을 공간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가들에게 힘을 주고, 만남과 소통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이 촉진되고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오 산(시무작은도서관 관장)

서툴지만 의미있었던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다조아TV, 다조아장터’ 프로젝트를 마치며...



흔히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사자성어입니다만, 올해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연말이면 좀 가라앉으려나 기대했던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은 11월 말 현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가톨릭대학교혁신센터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민학교에서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는 혁신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비대면 사회로 확장되어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헤쳐나가야 할 혁신은 무엇인가?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다만, 드는 생각은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방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쉽게 살아나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협동조합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유와 협업’의 대안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종의 기관끼리, 이종간의 기관끼리 협업하면서 질 좋고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정부 혹은 지자체와 조합들과 지역주민들이 긴밀하게 교류되고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천시협동조합협의회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한 ‘공유·협업 모델’ 다조아장터와 다조아TV 작업은 아주 작지만 의미있는 발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계획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알리고 장터를 펼치기로 한 계획이 무산되어 온라인장터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개별로서는 불가능했던 미디어교육도 받고, 각 기업의 소개 동영상도 만들며, 온라인 장

터를 만들어 함께 판로를 다양화하기로 하는 작업들은, 이제 앞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각자의 이해관계나 형편 등으로 매우 힘들다고 여겨 시도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다조아 프로젝트가 상황이 변하여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함께 하는 활동들이 다소 서툴기는 했지만 잘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모든 진행의 중심에서 진행해 오신 이음플러스 오산 이사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는 이 기세를 더욱 상승시켜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뭉치고, 부천시나 사회적경제센터, 그리고 지역주민은 물론 타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혁신적인 공유와 협업의 모델을 발굴해 나가기 기대합니다.

한 해를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 | 최승주(부천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2021 부천시여성회관 Gender 메이커 스페이스 ‘일꾼터’ 공간 조성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정책과 지역 요구에 맞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공모에 당선되어 공간 구축을 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메이커 스페이스는 5개 기관(소사청소년수련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청소년수련관, 부천시여성회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서 5개의 메이커 공간을 운영한다. 부천시여성회관은 복사골 문화센터 1층에 기존 여성창업문화공간 ‘일꾼터’를 ‘Gender 메이커 스페이스 일꾼터’로 새롭게 단장했다. 수공예기술과 IT장비 도입으로 수공예 창업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개발 및 판매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이커 스페이스 ‘일꾼터’에는 ▲UV프린터 - 가죽, 목재, 유리, 아크릴, 텀블러 등 프린트를 통해 다량 생산 가능함 ▲전사전용 프린터 - 휴

대폰케이스, 머그컵, 마우스패드, 티셔츠, 쿠션 등의 프린터(2021. 3월 이후 도입 예정) ▲열프레스기 - 코스터, 원단, 예코백, 티셔츠 등의 전사 ▲머그컵 프레스기 - 머그컵 전사용 ▲공업용 자동사절미싱, 오버룩미싱 등을 갖추게 된다.

메이커 활동의 일상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메이커 스페이스’ 모델 구축으로 인해 누구나 자신의 집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메이커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확산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 또한 4차 산업혁명

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여성기업 육성과 기술기반 창업지원 강화하고 있다. 부천시와 재단은 2020년 부천의 키워드인 ‘새로운 성장’에 기반한 도시발전계획 수립과 학교 청소년 대상의 메이커 교육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Maker City 부천’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부천시여성회관 Gender 메이커 스페이스 ‘일꾼터’에서 새롭게 성장하고자 하는 혁신메이커활동가를 모집한다. 혁신메이커활동가란? 1인 창업자로서 Gender 메이커 스페이스 장비를 활용해 수공예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판매력을 증대시키고 창업자로서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다.

글 | 부천시여성회관

소년희망공장으로 '씨앗 커피' 드시러 오세요!

스마일어게인 사회적협동조합 매장에서 장기기증 캠페인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소년희망공장 1호점(컴포즈커피 부천 중동중앙점), 2호점(컴포즈커피 마곡나루점) 3호점(케이더링 전문점 '스위트그린')에서 '생명의 씨앗커피'(이하 씨앗커피) 캠페인을 진행한다. '씨앗커피'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조원현)'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과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씨앗커피' 캠페인 기간에 소년희망공장을 방문한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기증희망등록)'한 고객과 새롭게 기증희망등록한 고객에게는 음료 10%를 할인해 준다. '기증희망등록'이란?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이르는 경우 장기 및 인체조직

을 대가 없이 기증하거나 혹은 사망하였을 때 대가 없이 각막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다.

'기증희망등록'을 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모르거나 바빠서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소년희망공장을 방문하시면 '기증희망등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년희망공장에서의 신규등록 방법은 컵홀더 및 홍보물의 QR코드 스캔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매장 내 비치된 서약서 작성 후 비치함에 넣으면 국립 장기기증원으로 전달된다. 신규 기증희망등록자에게는 음료에 대한 10% 할인과 함께 씨앗키트(마스크줄, 드림백 또는 쿠키)가 제공된다.

글·사진 | 스마일어게인 사회적협동조합

2020년 경기도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이해

12월 정기 온라인 교육

경기도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인 (사)사람과세상에서는 협동조합 입문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이해” 정기교육을 줌(zoom)으로 진행합니다

일 시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14:00~17:00

장 소

ZOOM을 통한 온라인 교육

신 청

구글 설문지 작성 (<https://forms.gle/9tkGSZgupUj4hKry8>)

문 의

전화접수 - 사회적경제본부 1팀 (070-4763-0134)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교육 신청을 하셔야 수강 가능하니 꼭 신청해주세요.
사회적경제본부 1팀 070- 4763-0134

겨울, 떠돌이 소년에게

엄마에게
버림받은 너는
오갈 곳이 없는 너는

갈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어
밤거리를 헤맨 너는

옷 좀 없냐고
연 몸을 감싸줄
두툼한 옷 좀 없냐고
지나는 말로 부닥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외면 당할까봐
주지도 않으면서 망신을 줄까봐
쪽팔릴까봐 슬그머니 너는 말했다

따뜻한 집에서 사는 나는
밥걱정 없이 살게 된 나는

패딩과 외투가 몇 벌인 나는
추위와 배고픔을 잊어버린 것처럼
너의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서러운 시절을 까마득히 떠나 보낸 내가
너의 추위와 배고픔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런 내가 적선처럼 한 말이
겨울을 잘 견디면 봄이 온다고
꽃 피고 새가 우짖는 봄이 온다고
봄이 오면 사랑도 올 거라고 떠들었다

너는 몸 누일 곳조차 없는데
한 끼니 밥이 서러워 우는데
봄을 기다릴 옷이 없어 덜덜 떠는데
나는 모포 한 장도 덮어주지 못하는
그놈의 얼어 죽을 사랑 타령을 했구나

소년아, 미안하다!

〈어게인〉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소년희망공장〉과 〈소년희망센터〉와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위기청소년과 미혼모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어게인(소년희망센터)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3번길 27
희망빌딩 2관 302호(032-662-1318)
-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4층 (032-655-4620)
- 소년희망공장 1호점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54번길 27 1층
컴포즈커피 부천중앙점 (032-323-2010)
- 소년희망공장 2호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컴포즈커피 마곡나루점 (02-6953-4747)
- 소년희망공장 3호점 경기도 부천시 중동 1300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상가 166호
'스위트그린' (032-321-1567)
- 소년희망공장 4호점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50길 1층
'수제스콘전문점, 카페 글로리' (010-9364-7090)
- 인천 소년희망센터 인천시 계양구 계산1동 944-7 3층 (032-546-4289)

심리상담
교육

010-7656-7276

·공연/이벤트
·공간조성/환경디자인
·인쇄/출력
·디자인
·기획/제안서
·영상/애니메이션

070-4632-6856

·케이더링
음식서비스
·샐러드&샌드위치
전문매장

032 321 1567

Eco'Soo

천연비누·디퓨저

· www.ecosoo.co.kr
· smartstore.naver.com/eco_soo

032-221-0909

·미디어 제작 및 교육
·지역사회 기안 연구조사 및 컨설팅
·세계공동체문화답사
·출판간행물
·문화공간 비지트(B:zit)

www.coopiu.modoo.at
032.7654.2825

·부천시 바우처 제공기관
·경기도교육청지정 대안교육기관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통합 가족상담 서비스
●이음플러스의 공감 케어 서비스

www.eumplus.net
032-673-0579